

몽고습래회사(蒙古襲来絵詞)를 해독한다

하시모토 유 橋本 雄 (홋카이도대학)

발표 요지

가마쿠라 후기에 일어난 몽고습래 (몽골전쟁)에 관한 사료는 의외로 적다. 그 중에서도 이 전쟁에 참가한

비후국 (肥後国:히고노 구니,현·구마모토현) 고케닌이었던 다케자키 스에나가가 그리게 했다는

「몽고습래회사」(궁내청 소장)는 두 번에 걸친 전쟁을 생생하게 묘사한 매우 드문 역사 자료로 알려진다. 즉

몽고전쟁의 기본 사료의 하나로서 본 두루마리 그림(에마키)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하지만 이 작품이 현재의 상태가 된 것은 에도시대 관정 연간 (19세기 초)의 수리·성권(成卷)에 의한

것이다. 또한 이 두루마리 그림에는 착간과 개변이 많아 관정의 수리에서 적지 않은 보필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보통은 하나 뿐인「옥서」(권말의 작성취지서)가 둘이나 존재하는 외에 용지 종류 또한

일관성이 없는 등 의문 투성이인 두루마리 그림이다.

따라서 본 작품을 역사연구의 측면에서 다루기 위해서는 먼저 면밀한 사료 비판이 필요하다. 회화작품이라

해도 본 두루마리 그림이 원래의 실제 모습을 묘사 한것은 아니다. 본 작품의 모습에서 순수하게 역사적

사실을 추출한다는 것은 의미가 없다. 이 두루마리 그림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면밀한 사료 비판이

필요한 이유이다. 즉 이 두루마리 그림의 성립에 얽힌 작성자의 의도와 목적, 현장에 대한 상상적 복원,

최근의 몽골전쟁 연구와 두루마리 그림 자체의 연구성과에 입각해 규명해 본다.

이러한 작업에 의해 몽골전쟁의 표상론에 대한 범아시아사적 단서를 얻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약력

1972년 동경출생. 1995년 동경대학 문학부 졸업. 2000년 동대학원 박사과정 학점취득 퇴학. 2004년 박사(문학)학위 취득. 일본학술진흥회 특별연구원, 규슈국립박물관 설립준비실, 동 학예부 연구원 등을 거쳐 현재 홋카이도대학 대학원 문학연구과 준교수.

전문분야는 중세일본의 국제교류사·문화사.

주요 저서:『중세일본의 국제관계』(요시카와 홍문관, 2005년), 『중화환상』(벤세이출판, 2011년), 『거짓의 외교 사절』(역사문화 라이브러리, 요시카와 홍문관, 2012년), 『"일본국왕"과 감함무역 어째서 아시카가 장군가는 중화 황제에게 「조공」했는가』(거슬러 올라가는 일본사: 외교편 [7]무로마치, NHK 출판, 2013년)등.